

오라관광단지 사업 7월 개발심의 받는다

JCC “투자사 자료 제출… 사업 추진 의지 변함없다” 도 “통과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재상정”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5조원대를 투입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7월 예정인 제주도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지 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JCC가 이날 투자사인 화옹그룹의 재무제표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조달 등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도에 접수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4월말까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JCC의 회사 사정

상 연기 요청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미뤄져 왔다”라며 “오늘(22일) JCC가 투자사의 재무제표 등 요구한 자료들을 접수함에 따라 7월 심의위에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심의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의위를 통과할 경우, 향후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CC 관계자는 “투자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

료를 충실하게 제출했다”며 “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5조2180억 원을 투입, 제주도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에는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해 자본 조달 검증과정에서 자본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한편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개발사업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자연체험파크(옛 사파리월드)는 재검토 의결을,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조성사업은 조건부 의결을 각각 받았다. 자연체험파크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수익 추정 분석의 현실성·타당성 보완, 야간조명에 의한 생태계 피해(예상) 최소화 방안, 반려동물공원 조성계획 및 오물처리 등을 감안한 보완사항이 요구됐다.

신화역사공원은 신화·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참여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내려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송악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 등 공동 토론회 개최

송악산 개발 반대 지역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농협 옹비관에서 ‘송악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성운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상임이사, 김유정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 소장이 전문가로, 100여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김정임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 추진을 말하기 위해서는 송악산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송악산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자리가 없었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열린마음으로 얘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교수의 ‘송악산 일대의 가치성과 개발 방향’과 조성운 교수의 ‘송악산의 미래, 대정 주민의 미래’ 발제와 김유정 소장·안은주 대표·강순석 박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관계자들은 제주도의회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부동의의 함에 따라 개발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이 상황이야말로 개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의 의견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용 국고·도비로 일부 보조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일부가 국고·도비에서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마필산업의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승마장을 대상으로 외승(장거리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체험비 일부가 지원되는 승마장은 표선면 OK승마장과 남원읍 웃귀마타마타운 등 2곳이다. 두 곳은 지난 8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참가, 같은 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 곳에는 제주도에에서 조성한 마로를 이용하는 외승 프로그램 이용시 회당 15만원 중 9만원이 국고·도비에서 지원된다. 1인당 3회까지 지원되며,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표선·남원·성산·안덕 등 4곳에 마로 5개소·55.47km가 조성돼 있다.

서귀포시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말 관련 사업들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마필사육 기반 확충 사업으로 말조련 시설·목책 시설·조사로 생산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760-2681)로 문의하면 된다.

현영준기자 yihyeon@ihalla.com



제주 해바라기 ‘활짝’ 22일 제주시 회천동 김경숙해바라기농원에 해바라기가 만개해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본격

서귀포시청 셋마당서 발대식… 29명 활동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위원장 허은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자문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6명·자문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

으로 2년 동안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1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발대와 함께 서귀포 청년혁신가 컨퍼런스 개최, 청년정책 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문제 관련 정책 제안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는 3개 분과를 구성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시정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진단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청년 역량강화 교육 및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정책 제안 발굴 등 피드백에 주력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서귀포시 지역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시책 제안 등 많은 의견과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영준기자

‘한라산 총서’ 증보판 내년 나온다

꽃자왈·기후변화 등 망라

한라산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집대성한 ‘한라산 총서’ 증보판이 내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라산의 자연과 인문자원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한라산 총서’(증보판) 발간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이사장 김찬수)는 제주도 내 한라산 전문가와 학자 등 집필진 47명과 함께 원고 집필을 추진하고 있다.

‘한라산 총서’ 초판은 2006년 한라산의 자연과 생태, 경관, 역사, 문화 등의 10개 분야와 동·식물 목록을 포함해 모두 11권으로 발간됐다. 증보판에는 초판의 내용과 자료 등을 보완하고 그동안 수록하지 못

했던 한라산의 지형과 지질, 문헌자료, 한라산 꽃자왈, 기후와 기후변화, 국제보호지역으로서의 한라산, 그리고 한라산의 산림분야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신간 5권이 결집되며 증보판은 총 16권으로 발간된다.

특히 한라산의 산림분야에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제주산림의 역사와 산림자원의 현황, 조림의 역사, 표고버섯 등 제주지역 임산물의 변천사, 제주도의 산림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한라산의 자연과 생태·역사·문화 등 가치를 기록 정리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한라산 총서’ 증보판 발간을 통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과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농지원부 일제 정비

제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소유자·임대자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농지원부를 1만 2970건에 대해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는 농지원부에 과거 기록된 소유자 정보, 임대 정보 등을 현재와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상민기자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희망자 모집

도민자본에 의한 에너지개발사업 투자 촉진으로 도민소득 증대기회를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투자 희망자를 모집하고자합니다.

- 투자금 모집 내용**
 - 투자자금 모집액: 10억 원(10구좌, 1구좌 1억원)
 - 1인 투자자금 응모한도: 3구좌이내
 - 투자금 모집 기간: 2020.6.30(화)일까지
 - 응모신청 방법: 전화상담 후 면담 결정
- 투자금 상환 및 이익배당**
 - 총 투자금 상환 기간: 8~10년, 3년마다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희망자에 한하여 상환 가능
 - 투자금 회수 기간 동안 이자지급: 연리 4.5%, 매월마다 지급
 - 투자금 전액 상환 후 이익 배당:매년 당기 순이익의 45%(연간 약 50백만원 예상)를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당
- 기 타**
 - 투자금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투자금 상환 시까지 투자자 위원회에서 회계 관리 전담

▶ 투자금 응모 상담 연락처
010-5657-1748

성현에너지개발주식회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른설치부터 A/S까지 특화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01**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